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세상에 대항한 라합

(여호수아 2:1-24)

요단 강을 건넌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열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했고, 그 중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은 우물가의 한 여인을 구원하려 하심이었습니다(요 4:4).

두 정탐꾼은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마을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합을 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영과 육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인물 중에는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라합의 신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라합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설 자리는 육신적 동족의 자리가 아닌 영적 형제,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여들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라합은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했고 마침내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산 라합이 받은 상급입니다.

밧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을 단순한 이야기로만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 라합이기에 정탐꾼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선 것처럼 누구도 구원에 대열에 서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3. 믿음으로 라합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는 신약에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히 11:31, 약 2:25,26).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영하고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는 좋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주둔지이기 때문에 거지말 한 것이 드러나면 즉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이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을 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5절). 라합이 이처럼 위험한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라합의 입장은 동족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와 자기 백성과의 인연을 과감히 끊었습니다. 라합은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았습니다.

라합은 물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설 자리는 육신적 동족의 자리가 아닌 영적 형제,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라합은 여들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라합은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후에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했고 마침내 메시아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산 라합이 받은 상급입니다.

4. 붉은 줄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예표(豫票)합니다.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은 도시가 점령될 때 그녀와 그녀의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정탐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창에 달아매어 약속의 표시로 삼고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17-18절).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항한 라합처럼 불경건하고 속된 세상문화에 대항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라합의 집에 친 붉은 줄이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라합보다 나은 것은 우리에게 이미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구원의 반열에 선 라합처럼 죄악 된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하나님의 공표를 입은 라합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요 4:22).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공표를 입은 라합은 그러한 특권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습니다(렘 2:12).

라합은 아모리인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비열한 백성이었고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어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도 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도착하기 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며 자신의 옛 생활은 청산한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기생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이 비천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며 비천한 라합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2.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라합은 이방인이요 아모리 족속이요 기생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마침내 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 아모리의 두 왕을 진멸시키신 사실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민에게 약속된 언약이 되거나 언약이나 율법, 예배나 축복과 같은 약속은 없었지만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 듣고 하나님을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U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06년 상반기 전도시상식

7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가져

2006년 상반기에도 성도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로 많은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한 성도들의 열심을 격려하기 위해 교회는 7월 16일 주일찬양예배 시간에 전도자를 시상한다.

금년 상반기에 등록된 새가족은 총 765명이며, 그 중 본인등록이 220명, 일반성도 전도등록이 204명, 70인 전도대 전도등록이 341명이었다. 그 중 100명 이상 전도자로서는 박이선 집사가 109명을 전도하였으며, 50명 이상 전도자로서는 임명숙 집사가 65명을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명 이상 전도한 성도들은 총 156명이며, 그 중 10명 이상 전도한 성도 12명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5명 이상 전도

한 성도 26명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패 수상자(10명 이상 전도)**

박이선 임명숙 김 옥 이현주 장정화 김은순 김동진 김미성 남현주 최성희 김혜중 이상은

***상장 수상자(5명 이상 전도)**

서순희 유숙인 서희숙 윤현미 박 옥 이미송 김숙자 박길희 이창희 박영숙 최춘숙 김규희 김미향 서경화 박정임 광미숙 박광일 이인숙 조성엽 최광성 정애신 정연택 김정희 은기장 손영호 김금준

2006년 선교사로 다섯 분 청빙

우리교회는 세계교회의 제사장된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해도 선교사를 모집하였다. 교회는 지난 6월 22일(목), 23일(금) 양일간 면접을 실시하여 다섯 분의 선교사를 최종 선

임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선교사들은 앞으로 파송되기 전까지 3개월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2006년 선교사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신문계 목사(59년생)-러시아 선교사

장신대 신학과 졸업(Th.B)
 동아대 교육대학원 교육심리학과 졸업(M.Ed.)
 장신대 신대원 졸업(M.Div.)
 일본 동지사대학 신학연구과(조직신학 전공) 졸업(Th.M)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대학 박사과정 D.E.A
 (학위논문 제출 자격취득)
 현재 학위논문 작성 중
 목사안수(부산노회 93.4)
 동래중앙교회, 동현교회 교육목사, 부산 장신대 전임 강사
 러시아 선교사

목사 안수(서울 동노회 2000.3)
 남부교회 부목사
 러시아 연방 하카스공화국 선교사
 중국 선교사

손혜신 사모(64년생)-이스라엘 선교사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졸업(B.A)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사학과 졸업(M.A)
 두란노 한 이 성경연구소
 한국 성서대, 개혁신학연구원 강사
 러시아·중국 선교사



이은숙 사모(66년생)-러시아 선교사

경성대 일어일문학과 졸업(B.A)
 일본 동지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M.A)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획득
 홀트 아동복지회 근무
 러시아 선교사



이황명 목사(68년생)-이스라엘 선교사

건국대 농학과 졸업
 장신대 신대원 졸업(M.Div)



전광혜 전도사(57년생)

-터어키 선교사

고려신학교 졸업
 고려신학교 신학원 목회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 선교의 성경학교 수료
 대암교회, 지영리 교회 전도사
 터어키 선교사

이종운 목사 제헌절 기념예배 설교

7월12일(수) 국회에서

제58주년 제헌절 기념 조찬기도회가 7월 12일(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대한민국 국가 조찬기도회, 국회조찬기도회, 헌정기도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이날 이종운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고 찬양은 우리교회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신홍식 장로, 지휘: 고성진 집사)가 맡는다.

장년부 연합 특강

14일(금)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장년부 연합 특강이 오는 14일(금)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이번 장년부 수련회 강사는 곡선희 목사(소망교회 원로목사)가 서며 '신앙과 헌신'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다.

곡선희 목사의 현장감 있는 강의가 이어질 이번 연합 특강에 모든 장년부원들은 물론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여름철 목사복(셔츠) 착용만으로

7~8월 양월간 모든 교역자들은 반팔 상의 목사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상의 목사제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남녀 선교회 월례회, 심방 예배, 금요기도회 등을 인도할 수 있다.

금주의 성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16-18 [NIV])

나의 하나님

나그네 된 집에서...

문명미 집사(프랑스)

2001년 홍해작전 기간 동안 밤마다 세 아이들과 유치부실에서 잠을 자고 아침이면 새벽예배에 참석해 하나님께 올려 드린 저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유업으로 주신 사랑하는 딸 기운, 두 아들 기한, 기찬이를 세계화 시대에 세계를 품고 쓰임 받는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 아꼐이 천사와 씨름하였던 것처럼 자녀에게 축복하여 달라고 매일 아침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저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해 8월11일 저와 세 자녀를 프랑스 파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떠나기 전 출국수속을 하는 중에 비자가 나올 줄 알고 8월11일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나올 줄 알았던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불법 체류할 수는 없습니 다. 그 땅에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서류를 갖추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자를 재신청한 당일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제 손에 비자를 쥐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날부터 저희 가족의 광야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파리 땅에 도착한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막내 기찬이는 프랑스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큰 소리로 "들렀거라 이

것들하나님의 왕자가 나가신다. 기찬아! 기죽을 것 없어, 네 눈에는 안보여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천명의 천사가 너를 지켜주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네 아버지 너는 하나님의 왕자다." 한껏 기를 살려주고 아이가 들어가고 나면 벤치에 앉아 "하나님 주님의 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찬이 선생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찬이가 수업시간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런 저는 "기찬아, 왜 공부시간에 노래를 불러?" "엄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니까 눈물이 나와요" 불어로 진행되는 수업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파리 땅에 정착한지 만 5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저는 세 아이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구별된 훈련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6시까지 온가족이 금식을 합니다. 일곱 살 때는 12시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울던 기찬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엄마를 위해 죽을 쑤어 놓을 정도로 의지해졌고 9월이면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특공대 훈련 5년째, 저희 가족은 주님의 십자가 군사로 서기 위해 오늘도 2001년 홍해작전 기도 카드가 붙여진 작은 기도실에서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할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천국시민양성- 사랑부 성경학교 초대이글

테마별 성경학교

김삼언 집사(사랑부 교사)

신나는 여름 성경 학교가 돌아왔습니다. 사랑부의 여름성경학교는 타 부서와는 달리 주일 단 하루만 개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성경학교 교가와 주제가, 율동들을 배우며 여름성경학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해는 특별히 장애우들을 위한 맞춤 성경학교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 교사들이 강습회를 다녀와서 특수한 사랑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말씀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성경 학교는 더욱 기대 됩니다.

오는 7월 16일(102호,10:00~15:00) 개최되는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 나라는 참 좋아요"입니다. 비록 불편한 육체지만 이번 만큼은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섯 가지 테마들이 (1.하나님 나라는 편안해요. 2.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해요. 3.하나님을 경배해요. 4.하나님 나라는 즐거워요.5.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님이에요.)를 힘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습회와 준비기도회, 연속 금식 기도로 소중한 영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헌신은 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겁지만 합니다.

참으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부 학생과 교사들이 온 맘과 팔과 다리, 우리의 몸을 드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부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육적으로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이 주신 바리스타의 영광!

최지옥 성도 (12교구)

예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나는 평소에 커피를 좋아하며 즐겨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음료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기품 있는 향기와 쓸쓸한 맛이 어찌면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깊이 이끔렸습니다.

인생들이 적극 개입할 때 커피 한 잔의 흐르는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형태의 풍경과도 같습니다. 그 풍경 속에 삶의 향기가 있고 꿈과 도전이 있고 갈등과 화해가 평화의 여러 이야기들로 지나가는 예술인 것을..... 나는 그 매력에 이끌리어 한국의 바리스타가 되기를 기도로 준비하며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 바리스타대회(커피 아티스트)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커피의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대회를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작품과 창작으로 날마다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시애틀 대회에서 주님의 은혜로 아시아 2위를 하였지만 이제는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



이 주신 영감으로 2006스위스대회에 나가 대한민국 의 위상을 펼쳐보리라는 마음으로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드디어 2006. 스위스대회가 열리는 날, 각 나라 선수들이 입장하며 대한민국이 입장 할 때 대한민국! 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우리 응원단들의 기립 박수의 열정과 그 열기는 뜨겁다 못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렇게 뜨겁게 응원하지 않았습니 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화선교사로서 당당히 입장 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면서 준비하는 각 국 선수들의 움직임에는 신중함을 넘어서 비장함까지 감돌았고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어디선가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 "강하고 담대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



라"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신기하게도 하나님 손에 이끌리어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조용하고도 침착한 가운데 대회를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시애틀 대회에서도 은혜로 붙들여 주신 주님께서 2006. 스위스대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2등을 수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앞으로 세계 정상을 향해 도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 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내 교회를 세우라!

장석남 목사(단기선교팀 지도)

카자흐스탄은 회교국가입니다. 이곳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방전도나 선교가 금지되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선교한다고 다가가거나, 전도를 위한 복음제시를 하다가는 추방당하기 십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 당국의 허가를 얻은 선교사가 예배당 내에서 종교집회를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울교회 제 6기 단기선교팀은 선교팀을 위한 선교, 선교 비전트립을 지양하고, 현지 선교 사역의 토대를 기경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선교사역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서울교회가 카자흐스탄에 파송한 이은준 선교사님과 지속적인 비전 웨어링을 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예배당을 먼저 건축해야 비로소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18)' 말씀 속에서 선교팀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건축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출국해서 18일 귀국하기까지, 카자흐스탄 따라즈 지역에서 낮에는 미르(평화)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저녁에는 따라즈의 영적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에도 돌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과 동시에 의료봉사팀, 이용봉사팀, 태권도 사역팀이 따라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섬김

의 사역을 함으로써, 교회 건축 이후의 선교를 위한 우호적인 관계망 형성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는 이은준 선교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을 초청하여, 찬양팀과 교회학교 팀이 정성껏 준비한 영적 페스티벌을 통하여 뜨거운 은혜의 교제를 가질 계획입니다.

제 6기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준비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10주 동안 진행된 서울세계선교대학에 참석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선교 대학 이후 매주 모여서 회교문명 및 카자흐스탄 현지 상황 이해 및 카자흐스탄 언어 훈련 등 5개 팀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따라즈의 현지의 견고한 영적 요소를 돌파하기 위하여 강력한 영적전쟁과 중보기도 훈련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예배당을 세우기 위하여 벽돌 한 장 한 장씩을 맨손으로 쌓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내부를 채우기 위하여서는 많은 시설과 장비들이 필요하며, 선교팀의 활동을 위하여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통하여 '내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보직 일부 변경

- 하반기부터 교역자 보직이 일부 변경된다.
- 장석남 목사 - 7, 8교구, 초등부 지도
- 정수길 목사 - 멀티미디어, 출판국, 순례자 지도
- 윤영국 목사 - 한국교회강신연구원(KIMCHI) 지도

무지개회 총회

지난 6월26일 무지개회 총회가 열려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회장-박정순 권사, 총무-박태희 권사, 서기-이은진 권사, 회계-이영숙 권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무지개회는 우리교회 장로님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기관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2일(수) 58주년 제헌절 기념 조찬기도회 설교, 13일(목) 북한연구원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는다.
- 이성득 목사는 충북 청주 소재 교회의 청빙이 있어 오늘부로 사임한다.
- 득녀: (4교구) 장운식 성도 이정옥 성도가정
- 개업: 권소영 집사(12교구) '빛'의 펍 직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804-2 컷터프라자 103호 T. 031-889-7870
- 이사: 황정옥 집사, 주경자 권사 가정(12교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서희아리체 102동 1901호 T. 031-443-4255
이갑진 장로 박우주 권사 가정(12교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현대홈타운 T. 011-9001-4201
- 주간식당 봉사: 에스터전도회(7월9일)
한나여전도회(7월 16일)
- 금주의 식사제공: 최인수 집사 고완순 권사 가정
최중시 장로 최길옥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교회규정 일부 보완되다

- 협동 권사·협동 집사제도 신설 -

우리교회 당회는 교회 부흥과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규정 일부를 개정 보완하였다.

운영규정 3장 5조 3항에 협동집사와 협동권사 그리고 무임장로와 무임권사 제도를 추가하고, 직원 운영 내규 중 21조 조직의 사무분장 중 총무과, 관리과, 전산과로 구분하고 과장제도를 신설키로 하였다.

본인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분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효과적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회는 협동집사 또는 협동 권사 제도를 신설하고 규정에 따라 합당한 자를 임명하게 된다.

또한 타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받고 이명해으신 분들의 경우 종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하였다가 합당한 시간이 지나고 믿음과 봉사에 본을 보인 자에게 피선거권을 갖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앙과 행위가 성경적이고 모범적일 경우 당회가 무임권사로 임명하고 추후 권사 선거시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단, 50세 미만의 권사는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타교회에서 장로로 시무 또는 은퇴한 이가 이명해 온 경우에는 당회가 심의하여 무임장로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 충만한 성회 되도록
2. 피택 집사·권사들 은혜 중 교육과정 잘 마치도록
3. 호산나 복지법인과 사랑의 집터를 위하여
4. 새로 번역된 주기도·사도신경 한국교회가 사용토록
5. 북한의 신앙 자유를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